

제 4회 이사회 의사록

2007. 4. 24(화) 16:30

한 국 관 광 공 사

2007년도 제 4회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007. 4. 24(화) 16:30

2. 장 소 : 16층 회의실

3. 안 건

(심 의 안건)

◎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정(안) : 수정의결

◎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 원안의결

(보 고 안건)

◎ 버지니아 공과대학 사건 관련 시장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 : 원안접수

◎ 금강산면세점 영업현황 보고 : 원안접수

◎ 제4회 대학생 광고대상 공모전 개최 보고 : 원안접수

◎ 2007 ASTA 제주총회 개최결과 보고 : 원안접수

4. 재적 이사 : 9명

5. 출석 이사 : 9명

6. 참 석 자

사 장 김 종 민	이 사 김 지 상
감 사 강 영 추	이 사 신 진 기
이 사 강 광 호	이 사 도 영 심
이 사 최 갑 열	이 사 정 의 선
이 사 홍 주 민	이 사 김 향 숙

7. 의 사 록 : 붙임

의 장 : 지금부터 이사회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2007년도 제 4회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먼저 지난 제 3회 이사회 안건인 이익잉여금 처분 및 배당 확정 보고, 한국관광브랜드 구축사업 추진현황 보고, T2 아카데미 개소 보고, 관광개발 컨설팅 현황 및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문화가 있는 화장실 가꾸기 사업 보고, 충청북도 유비쿼터스 관광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보고, 공사 혁신 실적 보고,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개편 관련 보고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마친 제 3회 이사회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이견 없음을 확인)

의 장 : 이견이 없으시면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심의안건 2건, 보고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정(안),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등 2건 이며, 보고 안건은
버지니아 공과대학 사건 관련 시장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
금강산면세점 영업현황 보고, 제4회 대학생 광고대상
공모전 개최 보고, 2007 ASTA 제주총회 개최 결과 보고
등 4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인재개발팀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팀장 제안설명하다)

의 장: 방금 마친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기 이사 : 규정 내용 중 몇 개의 조문에 있는 표현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조에 보
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
19조를 원용한 것 같은데 상위지침인 공기업·준정
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보
면 임원추천위원회 세부 구성 방법, 추천절차, 후
보자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
로 제1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
한 지침 제25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임원추천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바꾸어야 조문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3조의 각 호에서 제1호는 ‘임원 후보

자 심사'로, 제2호는 '임원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으로, 제3호는 '사장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의 경영계약안'으로 표현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4조의 구성에 관한 부분인데 1항에서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라는 표현은 '임원의 임기만료가 예정된 경우'로, 4항의 경우 후반부에 '공사 임직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란 표현이 있는데 법조용어에서는 1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항의 경우 '임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7조와 관련하여 후반부에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불필요한 조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항에서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공고 하여야한다' 정도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4항에서도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이라는 표현을 그냥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8조 2항에 보면 '공개모집 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공개모집 시와 같은 기준과 방법'이라고 바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12조를 보면 '응모자·추천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응

모자와 추천된 자'라고 바꾸고 총 2회 이상이라는 표현도 그냥 2회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제14조 5항에 보면 '후보자 발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법률 용어에서 발굴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발굴이란 땅속에 묻혀 있는 유적 등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선발'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제목에 '사무국 운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운영'이란 표현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항의 표현 중에 '사무국을 운영한다'라는 표현도 '사무국을 둔다'라고 바뀌면 되겠습니다. 또한 2항에 '설치하며'라는 표현도 '두며'라고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 제19조에 보면 제1항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 후보자심사기준, 추천절차 등에 관한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제4조 5항에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팀장 : 신이사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상 이사 : 먼저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다만,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신진기 이사 : 제16조 본 조항에 보면 마지막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굳이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팀장 : 그 부분은 공공기관운영법시행령 제23조 7항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운영법이나 시행령 또는 운영지침에 있는 표현들을 인용했습니다.

신진기 이사 :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까지 찾아보면서 확인한 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향숙 이사 : 제 생각에는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간절약 차원에서 축조심의로 진행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영심 이사 :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자구 수정은 실무자와 별도 작업을 해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진기 이사 : 김향숙 이사님 의견대로 이 자리에서 조항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 장 : 그러면 이 자리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지적하신대로 ‘혁신지침 제25조 및 인사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팀장 :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근거로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에 보면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 제2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지침에 따라 인사운영지침이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운영지침 자체가 혁신지침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은 차 상위 지침인 인사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의 장 : 문제는 최하위 규정인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상위 지침들보다 오히려 더 간략하게 처리된 조항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대표 1인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상위 지침에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하위

지침에 위임했는데 정작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서는 훨씬 더 간단하게 규정을 처리한 부분이 대표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팀장 : 타 기관의 경우를 보면 보통 회사나 직원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발할 때 노조가 없는 기관에서는 직급대표라든가 대의원을 선출해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해 선발된 대표를 직원 대표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진기 이사 : 제 의견은 인사운영지침 제12조 3항에 분명히 직원대표 선출과 관련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를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 제5항에 간단하게만 언급하는데 그친 것 같아서 인사운영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지상 이사 :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규정에서 공사 임직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란 공사 임직원 중 한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재개발팀장 : 공사 임직원 및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단, 교

육공무원은 가능합니다.

김지상 이사 : 이사회는 규정 제정에 관한 방향이나 절차와 관련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구 등은 실무부서에서 신이사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광호 이사 : 신이사님 말씀중 제4조 8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직위 결원이 생기는 원인은 반드시 임기만료의 경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 사장님의 경우도 임기가 만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만료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의 장 : 그러면 조문별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먼저 제1조와 2조는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제3조는 1호의 ‘임원후보’를 ‘임원후보자’로, 제2호의 ‘추천대상 임원후보’를 ‘임원후보자’로, 3호의 ‘추천하고자 하는자와’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의’로, 역시 3호의 ‘협의·조정’을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4조는 1항의 ‘임기만료의 경우’를 ‘임기만료가 예정된

경우'로, 4항의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으로, 8항의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를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5조와 6조는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제7조는 3항의 '제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제공고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8조, 9조, 10조, 11조는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제12조 1항의 '응모자·추천된자'를 '응모자와 추천된 자'로 '총 2회'를 '2회'로, '개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13조와 14조는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제15조는 제목인 '사무국 운영'을 '사무국'으로, 1항의 '위원회는'을 삭제하고 '사무국을 운영한다'를 '사무국을 둔다'로,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며'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며'로 수정하겠습니다. 제16조 이하는 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정(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다음은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조정팀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제안설명하다)

의 장 : 방금 마친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기 이사 : 이 안건은 공공기관운영법과 시행령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달리 토의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동의를 확인함)

의 장 :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선임비상임이사 선출은 안건보고를 모두 마치고 비상임이사님들께서 호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 장 : 다음은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사건 관련 시장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마케팅기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케팅기획팀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마친 버지니아공과대학사건 관련 시장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심 이사 : 저는 이번 버지니아 공과대학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해 매우 실망했습
니다. 7세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성장
한 어느 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정부 차원
에서까지 사과를 하고 책임을 운운해야 하는 것
인지에 대해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미국에
는 한국 유학생이 10만명이나 되고 이민 간 교
포들까지 합치면 몇백만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습
니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과잉대응을 하면 미
국에 있는 한국인 각 개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
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
다. 언론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기사거리를 만들어 내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기사 하나하나에 흔들
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관광공사는 Korea,
Sparkling을 선포했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 장 : 의견 감사합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버지니아 공과대학 사건
관련 시장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다음은 금강산면세점 영업현황에 대하여 면세사업
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단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마친 금강산면세점 영업현황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이사 : 보고 내용 중 임차요율은 구간별로 다른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면세사업단장 : 임차 보증금 대신 매출액 대비 임차료 지급액
을 정했습니다. 매출액이 60억원 이하일 때 매출
액의 8.5%를 최저로 하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
라 구간별로 9.5%, 10.5%, 11.5% 방식으로 증액

하여 매출액이 최고 14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14.5%까지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금강산면세점 영업현황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다음은 제4회 대학생 광고대상 공모전 개최에 대하여 사업홍보관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홍보관리실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마친 제4회 대학생 광고대상 공모전 개최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상 이사 : 수상작품을 공사 광고안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사업홍보관리실장 : 공모 시 입상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미리 공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의 장 : (각 이사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4회 대학생 광고대상
공모전 개최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다음은 2007 ASTA 제주총회 개최 결과에 대하
여 컨벤션유치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유치팀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마친 2007 ASTA 제주총회 개최 결과 보고
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심 이사 : 제 생각에는 ASTA 총회에 참가했던 미국의
여행업자들에게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의미에서 공사 사장님 명의로
안부편지라도 보내준다면 향후 그 사람들과 업무
추진 시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 장 :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심 이사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두 행사의 한국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 장 : 예,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7 ASTA 제주총회 개최 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이제 안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공공기관운영법 제21조에 의거 선임비상임이사를 호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감사, 상임이사 퇴장)

(선임비상임이사 선출)

(사장, 감사, 상임이사 입장)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인 기록 차원에서 선임비상
이사 호선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기 이사 : 선임비상임사는 정의선 이사께서 맡아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건 심의 및 보
고와 선임비상임이사 선출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다
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4회 이사회를 이
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타봉)

공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 10조 제 2항에 의거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 날인하다.

2007. 4. 24.

사 장 김 종 민

이 사 김 지 상

감 사 강 영 추

이 사 신 진 기

이 사 강 광 호

이 사 도 영 심

이 사 최 갑 열

이 사 정 의 선

이 사 홍 주 민

이 사 김 향 숙